



쿠팡
트래블·명품 등
보상쿠폰 ‘쫄개기’
L1



Life

제약업계
헬스·화장품 등
돌파구 모색
L2



AX 주도권 잡고, 생산적금융 성과 키우고… 혁신 불씨 지핀다

2026
생산·포용·신뢰의 금융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기술이 금융의 질서를 바꾸는 중대한 변곡점인 만큼 신한만의 존재이유를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 웹(Web)3, 주체적인(Agentic) 인공지능(AI)의 확장이 현실화되며 예금, 대출, 송금 등에서 기존 회사들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며 “미래전략 산업을 선도하고 생산적금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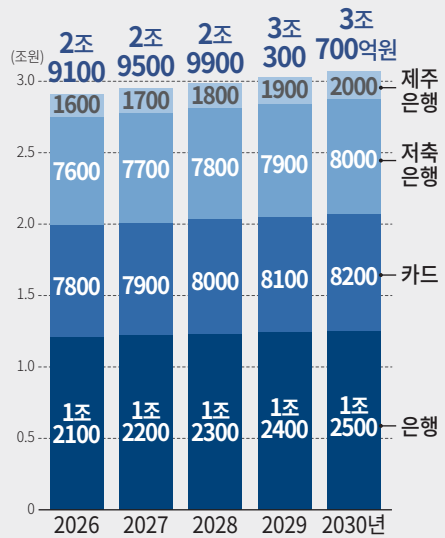
진 회장은 최근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혁신의 불씨가 되어 신한만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한금융 향후 5년간
포용금융 계획 현황

단위: 억원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사잇돌중금리대출, 미소금융 등
사업자금대출(확대), 서민주택임대보증금대출(축소) 등

/신한금융그룹

◆ AX·DX로 미래 금융 선점

신한금융은 ‘그레이트 챌린지(Great Challenge) 2030’ 미래 금융을 향한 대담한 실행을 슬로건으로 AX·DX를 가속화한다.

AX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프로세스, 의사결정,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DX)으로 업무를 디지털화했다면, 앞으로는 AI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다.

미래금융 향한 ‘그레이트 챌린지’
AI 데이터 기반 새로운 가치 창출
AX·DX 생존과제… 경쟁력 키워야

시니어 맞춤 상품·자산관리 강화
보험·자산운용 시너지로 수익성↑

진 회장은 “AX, DX는 단순히 수익 창출이나 업무 효율의 수단이 아닌 생존과제”라며 “일하는 방식과 고객 접점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만큼 AX를 통해 신한만의 경쟁력을 더욱 증강시키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AI 전환(AI Transformation·AX)을 위한 그룹 핵심 인재인 ‘AX 혁신리더’ 발대식을 가졌다. AX의 성과가 현업 주도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판단 아래 주요 자회사의 현업 실무자 중심으로 ‘AX 혁신리더’ 100명을 선발했다.

은행과 증권 자산관리 총괄(One WM) 체계를 강화하고 시니어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가치도 만든다. 은행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초고령사회에 맞게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품과 자산관리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의도다.

진 회장은 “보험과 자산운용의 시너지를 통해 자산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며 “글로벌에서도 확고한 조력차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그룹 조직개편과 생산적 금융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 그룹차원의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몰려있던 금융자금을 혁신기업, 첨단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지원한다는 의미다.

앞서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신한금융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추진위원회를 마련했다. 또 해당 전략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새롭게 발족시켰다.

신한금융은 추진위원회, 분과별 협의

회, 추진단 임원회의 등 각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추진성과를 그룹 CEO 및 자회사 CEO 전략과제에 반영해 그룹 전반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요 자회사에도 생산적 금융전담 조직을 신설해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 체계를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여신그룹 내 ‘생산포용금융부’를 신설해 제도 설계부터 운영·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기반의 ‘종합금융운용부’를 통해 초혁신경제기업 대상 투자·대출을 확대하고, 신한캐피탈은 상품·기능 중심의 조직 재편으로 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그룹 전반의 선구안과 실행 역량을 함께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 플랫폼 ‘땡겨요’와 포용금융

신한금융은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는 110조원 중 15조원을 포용금융에 지원한다. 은행 카드 저축은행 제주은행을 포함해 올해 2조9100억원

을 지원하고 ▲2027년 2조9500억원 ▲2028년 2조9900억원 ▲2029년 3조300억원 ▲2030년 3조7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한다. 배달사업인 ‘땡겨요’를 활용한 이차보전대출을 출시한다. 땡겨요는 배민, 쿠팡이츠 등 플랫폼 독과점 시장에서 가맹점과 상생하기 위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데이터를 통해 대출을 공급하는 플랫폼이다. 민관협력형 대출상품으로 최대 1억원의 운전자금을 제공(최대 4%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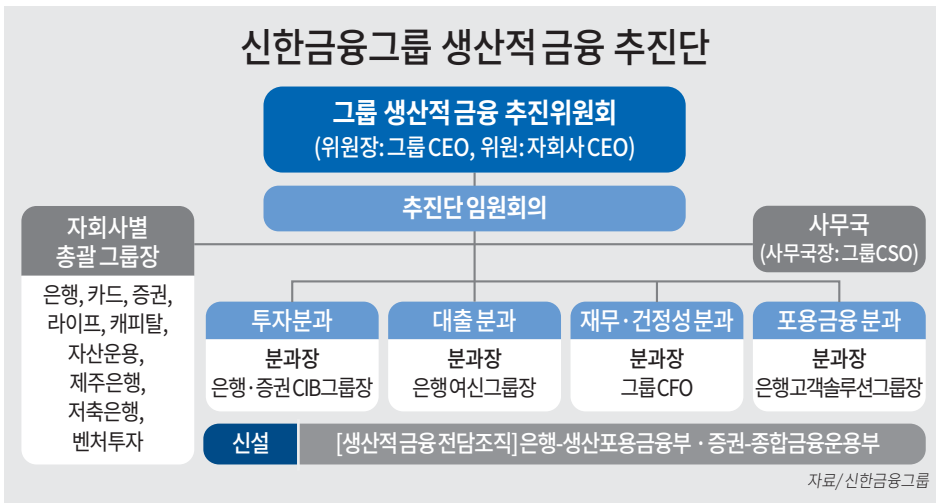
그룹 조직개편… 실물경제 성장 지원
생산·포용 금융에 5년간 110조 투입
성과창출 체계 강화해 역량 고도화

이차보전대출 출시·고객가치제고 등
지속가능한 생산·포용적금융 실천

고객의 신용을 상향(Bring-Up)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직접 도와주며(Help-Up), 절감된 이자를 대출원금 상환(선순환)하는 고객가치 제고(Value-Up)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신한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중저신용 고객은 신한은행으로 대환해 금리인하와 고객신용도를 상향한다. 신한은행, 제주은행과 거래하는 고객 중 두자리수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는 대출은 1년간 일괄 한자리수로 인하한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한만의 지속 가능한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델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홍현석, 벨기에에 헛트로 임대…출전 기회 찾아
친정팀 복귀
▲사령탑 바꾼 레알 마드리드…국왕컵 16강서 2
부 팀에 패배
/사진 뉴시스

▲안병훈, LIV 골프로 이적…‘코리안 GC’ 캡틴
맡는다
▲日 메이저리거 오타니, 스포츠스타 부수입 세계
1위…약 1500억원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5’ 최종 수
상자에 김영은 작가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역새, 봄까지 안 자른다…
첫 시도